

창조절 제8주일/2020년 10월 25일/종교개혁기념주일

구약: 신명기 34,1-12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2,1-8

복음: 마태복음 22,34-46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1. 오늘은 개혁신교회전통 위에 서 있는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16세기 유럽의 교회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무명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M. Luther, 1483-1546)가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교황청의 '대사'(면벌부) 판매에 항의하기 위하여 '95개의 논제'를 내건 날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해, '그리스도교 개혁', 혹은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고 언제, 'Reformation'을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술용어가 그렇듯이, 일본을 거쳐 번역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단어에는 은연중 '그리스도교 중심주의' 혹은 일본 개화기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한 '탈아입구'(脱亜入欧), 곧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일본의 유럽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오늘은 '16세기 유럽의 교회개혁 기념주일' 혹은 '마틴 루터의 교회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해야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하여, 16세기 유럽의 교회개혁의 세계사적 의미가 평가 절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교회개혁은 당시 부패한 가톨릭교회 비판과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비텐베르크의 무명의 한 수도사가 들어 올린 개혁의 기치는 고지식하고 과거에 정체된 중세에 대항한 이성의 반란이며, 무지의 어둠을 밝힌 빛

이자,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연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지요.¹⁾

그러나 루터의 교회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자신이 추구하는 교회개혁의 성공을 위해 황제와 교황청에 비판적이었던 지방 영주들의 비호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 영주들도 루터의 황제와 교황청 비판이 그들의 권력기반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루터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교회가 국가권력에 예속되는 것이었고, 루터교는 국가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한 가톨릭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라, 중세의 봉건질서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은 폭력적인 저항, 이른바 ‘농민전쟁’으로 치달게 되었습니다. ‘재세레파’, ‘토마스 뮌처’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급진적 개혁가였지요.

자기가 추구하는 교회개혁이 영주들에 대한 농민들의 반란 때문에 좌초될 것이 두려웠던 루터는 영주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을 학살할 것을 주문합니다. 루터 개혁이 남긴 짙은 역사적 그늘이지요. 루터가 남긴 부정적 유산은 그 외에도 전쟁과 자본의 정당화, 반유대주의, 반집시주의, 반여성주의²⁾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³⁾ 그래서 비판자들은 루터의 두 얼굴을 말하고, 루터의 교회개혁을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개혁운동이 순탄한 길을 걸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루터는 끊임없는 협박을 당했고, 화형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이 성공한 것은 탁월한 전략가이자 루터의 보호자였던 프리드리히 폰 작센 선제후의 도움 때문이었지만,⁴⁾ 중세 말의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루터보다 앞선 교회개혁의 선구자들의 노력과 희생도

1) 디트마르 피이퍼, 에바-마리아 슈누어 엮음, 1517 종교개혁, 박지희 역, 21세기북스, 2017, 19.

2) 독일교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받아드린 것은 1958년의 일입니다. 디트마르 피이퍼, 에바-마리아 슈누어 엮음, 1517 종교개혁, 박지희 역, 21세기북스, 2017, 202.

3) 볼프강 비퍼만, 루터의 두 얼굴 - 미완의 개혁, 루터에 갇힌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최용찬 역, 평사리, 2017, 11.

4) 디트마르 피이퍼, 에바-마리아 슈누어 엮음, 1517 종교개혁, 박지희 역, 21세기북스, 2017, 110-115.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Jan Hus, 1369-1415) 같은 인물이 그들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보다 130여년이나 앞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교황제도를 부인했습니다. 교황청의 세속권한과 세속 재산에 대하여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 그는 죽은 후, 부관참시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화된 중풍으로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 잉글랜드 교회당국은 무덤에서 그의 유골을 꺼내고 그가 범한 죄 260여 가지를 낭독한 후, 유골을 화형에 처하고, 남은 재를 모아 스위프트 강물에 뿌려, 그에 대한 기억조차 말살하려고 했습니다.⁵⁾

체코의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추종자로서 교회의 타락을 청산하고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화형에 처해졌고, 스위스 취리히의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취리히 근교 카펠에서 벌어진 가톨릭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으나, 시신이 네 갈래로 찢겨 화형을 당했습니다. 친구약 성경 전체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 1494-1536)도 화형을 당했지요.

이런 선구적 개혁가들의 희생 위에서 마틴 루터의 교회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개혁에 실패한 인물이 있습니다. 토마스 뮌처(Thomas Muentzer, 1490-1525)가 그런 사람이지요.

토마스 뮌처는 루터보다 7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후에 프로제에 있는 수도원의 수석 신부가 된 뮌처는 루터의 교회개혁사상에 매료되어 그를 추종하였지만, 사실 루터보다 먼저 교황청의 ‘대사’(면벌부) 판매를 비판했고, 루터보다 3년 앞서 독일어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예배 형식도 개혁, 미사와 직제를 모두 독일어로 하였고, 라틴어로 된 시편과 찬송도 모두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지금의 독일 개신교 예배 형식과 찬송가의

5) 이동희,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가들, 지식의 숲, 2013, 23.

모태는 사실 루터가 아니라 뮌처인 것이지요.⁶⁾

비범하고 열정에 사로잡힌 뮌처를 루터는 츠비카우 교회의 사제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로 수공업자, 광부, 직조공 등 하층민으로 구성된 카타리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현실을 보았고, 마침내 이런 경험이 후에 그를 영주들과 루터에 저항하는 농민혁명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제도화된 중세 질서의 수혜자인 영주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개혁을 하는 루터가 점차 뮌처의 눈에는 반쪽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개혁자로 보였고, 그래서 그는 루터를 새롭게 등장한 ‘비텐베르크의 교황’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⁷⁾

세상 권력에 대한 입장도 뮌처는 루터와 달랐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3장 1절을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뮌처는 로마서 13장 3절에 근거, ‘권세자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되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권세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뮌처는 권력을 상대화시켰습니다.⁸⁾

루터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루터는 더 이상 뮌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뮌처를 ‘살벌한 예언자’라고 비난했고, 뮌처는 한 때 그가 추종했던 스승인 루터를 ‘거짓말 박사’라고 부르며, ‘영혼 없이 편하게 사는 비텐베르크의 죽은 육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우정과 존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⁹⁾ 제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루터는 뮌처에게 공개적으로 적대를 표시합니다. 뮌처는 몰래 피신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독일 남부 지방에

6) Klaus Ebert, Thomas Muentzer: Von Eigensinn und Widerspruch, Frankfurt am Main 1987, 105.

7) 이동희,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가들, 지식의 숲, 2013, 131.

8) Klaus Ebert, Thomas Muentzer: Von Eigensinn und Widerspruch, Frankfurt am Main 1987, 133-135 참고.

9) 디트마르 피이퍼, 에바-마리아 슈누어 엮음, 1517 종교개혁, 박지희 역, 21세기북스, 2017, 266-267.

서부터 점차 북쪽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525년 4월에는 6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무장봉기를 했습니다. 영주들의 군대도 소집되었습니다. 무장한 농민들과 함께 무지개 깃발을 앞세우고 프랑켄하우젠으로 향한 뮌처는 승리를 확신했고, 영주 측 군대와 용병들의 첫 번째 공격은 무사히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센과 헤센의 제후 연합군은 새로운 공격을 시도, 마침내 6,000 명의 뮌처 추종자들은 참패를 당하고 대부분 살해당하거나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¹⁰⁾ 간신히 목숨을 건진 뮌처는 지붕 밑에 몸을 숨겼으나, 곧 밀고자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된 후, 헬드룽엔 성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 35살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1525년 5월 27일, 농민봉기 15일 만에 농민군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던 것이지요.¹¹⁾

단지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중세 봉건사회의 억압적인 질서 자체를 개혁하려던 토마스 뮌처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뮌처에 대한 평가는 시대마다,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뮌처, 두 사람의 개혁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개혁이 사회 개혁과 상보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성숙하게 변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요. 교회개혁이 사회변혁으로 완성되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견인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개혁은 ‘자기들만의 잔치’, ‘찾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의 선구자들과 토마스 뮌처는 모세와 비슷한 인물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정작 들어가지는 못한 비운의 인물이라는 점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뮌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땅을 보았고, 모세는 모든 인간이 해방된 땅을 보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미

10) 디트마르 피이퍼, 에바-마리아 슈누어 엮음, 1517 종교개혁, 박지희 역, 21세기북스, 2017, 190.

11) Klaus Ebert, Thomas Muentzer: Von Eigensinn und Widerspruch, Frankfurt am Main 1987, 226.

디안 광야의 목자로, 그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말씀하신 인물(신 34,10), 이스라엘 역사 상 다시는 나지 않은 예언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하신 주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모세 외에 한 사람도 다시 없다고 평가받은 인물(신 34,11-12),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신 인간(출 33,11), 그러나 아무도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신 34,6)이 모세였습니다.

토마스 뮌처는 16세기 유럽의 부패한 중세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라, 중세의 억압적인 사회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 갔기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역사 속에 실패한 개혁가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뮌처의 교회와 사회개혁 의지의 밑바닥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이 놓여 있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될 수는 있어도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이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마 22,36). 새번역은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율법지식을 알아보려고 한 것일까요? 토라에 있는 613개의 율법들 가운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일까요? 마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

을 예수께서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들은 후에 그들이 모인 것으로 보아 (마 22,34), 질문한 율법교사는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한 것을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면서 물었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크고) 으뜸가는 계명이다.”고 말씀하십니다(마 22,37-38).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에 읊는 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기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야 할 기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야 할 기도(신 6,6-9), ‘셰마 이스라엘’(이스라엘아, 들어라!)을 인용하심으로써 답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신 6,4-5).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율법 교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매일 드리는 기도로 답변을 하셨으니, 놀랄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아니, 어쩌면 지나치게 평범하고 널리 알려진 답변에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에는 613개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율법들이고,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들입니다. 율법학자는 그 가운데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제시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기도로 답변하신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은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한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데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기와 물이 그것이지요. 다이아몬드는 그 희소성 때문에 값이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다이아몬드 없어도 사람은 평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3분 동안만 공기를 접하지 못해도 죽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죽고, 3달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와 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지, 하나님 사랑의 전제가 아닙니다. 못 이겨, 마지못해,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기 위해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어렵지만 기쁘게 헌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계명에 놀랍게도 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마 22,39-40).

이웃 사랑의 계명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레 19,18).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율법학자는 아마 이번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모두 다 율법에 있고, 그는 충실히 그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이 이

방인, 혹은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이라면 사정이 달라지지요. 예수님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심으로써, 사실상 모든 인간을 -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정결한 인간이건 부정한 인간이건 - 몸이라는 보편성에서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의 경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몸의 느낌과 요구는 인종과 종교, 남녀노소, 어르신이건 젊은이건 다 같습니다. 나의 몸이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인간은 누구나 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은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몸의 구원 없는 영혼만의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영혼의 구원 없는 몸의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과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하나님 사랑과 (자기 몸과 같이)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될 수는 있으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요1서 4,20).

3.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은 가장 작은 계명인 이웃 사랑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소소한 것 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회개혁으로 번역한 ‘Reformation’은 ‘형태를 되돌림’(Rueckformung), 즉 ‘원형으로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시사하듯이 루터는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았을 것

으로 추정되는 본래의 상태로 회귀하려고 했습니다.¹²⁾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Ad fontes’, ‘근원으로’,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있다는 것이 16세기 유럽의 교회개혁과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6)가 제창한 르네상스가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떠도는 글들이나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이지요. 시대마다 교회개혁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길은 언제나 ‘Ad fontes’, 곧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근원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의 빛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다시 구성(Re-formation) 하는데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해야 할 일은, ‘95개 테제’의 첫 번째 테제에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회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마4:17)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개혁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설교 후 기도>

오늘의 한국교회, 이 모습으로 만든 것,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되돌아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오직 은혜로 온전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 디트마르 피이퍼, 에바-마리아 슈누어 엮음, 1517 종교개혁, 박지희 역, 21세기북스, 2017, 22.

<봉헌기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바치오니,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바친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출 25,2),

바친 빈손 위에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시편
50,23)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
들에게 주님의 구원, 지금 보여주셔서, 아픈 몸 낫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은혜 안에서 견실하
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또
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못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
시어(시편 98,9), 이 세상과 현실에 절망한 이들이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
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듯이(신
34,9),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넘치는 지혜의 영을 힘입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